



5면

전북대 카페 '아로미마실' 장애인 고용 유지 눈길

# 전주매일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음 7월 30일) 제262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지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추석 연휴 '청정전북 지키기' 올인

고향방문 자제 기본원칙  
특별 방역·안전예방 등  
전북도, 종합대책 시행  
민생경제지원 함께 추진

전북도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재유행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청정 전북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특별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추석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향방문 자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방역 ▲안전예방 ▲민생 경제 ▲홍보·점검 등 4대 전략 13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도는 추석명절 기간 중 무증상 및 경도 미확인 확진자의 전파검역과 가족단위 확산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고 코로나19 유입 차단과 위해 특별방역 대책과 함께 도민의 안전을 전제로 한 민생경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전북도는 추석연휴 동안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한층 더 강화된 생활방역 수칙과 방역점검을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이동할 때는 가능한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하고 휴게소 고향집 등 이동하는 장소와 등산에 따라 지켜야 할 추석맞춤형 생활방역 수칙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주요시설별 전수조사를 통한 방역 및 점검을 강화해 추석연휴 기간 감염확산이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방문판매, 음식점 등 중·고위험시설 24개 업종과 종교시설, 그 외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점검을 실시하고 중·위험시설과 종교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연휴기간 복지관 경로당 등 이용시설(9,497개)은 휴관휴원 조치하고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은 사전예약제 운영, 면회 자제(영상통화 등 화상 진행) 등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며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가정방문 무료 영상통화 방법을 지원하는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한 방역을 추진한다.



전북도 최춘 행정부지사는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고향방문 자제'를 기본원칙으로 ▲특별방역 ▲안전예방 ▲민생·경제 ▲홍보·점검 등 추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방역을 추진한다.

그동안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해외입국자와 외국인 유휴생 관리도 빈틈없이 추진하고 선별진료소(28개소), 검체채취 긴급지원팀(도 7명) 운영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차질없는 의료지원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별초대행서비스 및 버스 좌석 띄어 앉기, 공공문화시설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사람의 밀집을 분산시키는 사회적 거리 두기 안전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별초로 인한 지역방문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초가 필요한 출현인 대상으로 시군 의용소방대원이 별초를 대행해 주는 안심별초 서비스를 지원하며 도내 13개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별초대행 서비스 이용을 적극 홍보한다.

또한 도내 28개 봉안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등산분리를 통한 추모객 접촉 최소화, 추모시간 제한(20분 이내) 등 실내 봉안시설에 대한 방역과 방문객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추석 성묘를 위해 온라인 성묘서비스(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좌석을 띄워 앉게 배정하도록 고속버스는 1일 35대, 시외버스는 1일 10대를 늘려 운행하고 철도는 6일(9월29일~10월4일) 동안 93회를 늘려 귀성객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문화시설은 도민 귀성객의 쉼 공간 제공을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 제한적으로 개방·운영한다.

개방되는 시설은 박물관 등 문화시설 33개소, 문화재 5개소이며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아 시간별 이용인원을 10~20명 이내로 제한해 시행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관매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2,036개소)과 전동시장(63개소) 등 재난 취약분야는 자율소방대를 활용한 예방 순찰 등 비대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추석명절 종합상황실(7개반 180명), 24시간 재난상황실(5명) 등 비상근무를 강화해 민약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전제로 한 소상공인, 소외계층 등 민생경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전북도는 지난 호우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중앙 복구계획 확정 전 도 부담금 32억원을 추석전에 지급하고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당 80

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을 진행하고 있어 추석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2개분야 7개 상품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중에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세대와 사회복지시설에는 2억9,6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206개소에 정(精)꾸러미 보내기 등 비대면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나눔을 추진한다.

최춘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는 것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며 "이번 추석 명절은 자신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부지사는 "전북도는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외된 계층을 위한 민생정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화상으로 연결해 전주시 방역과 경제 대응 모범사례를 청취했다.

## "전주시 방역, 전국 모범사례"

민주당 최고위,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 극찬

착한 임대운동 전개와 재난기본소득 도입,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등 전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정책들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수예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약 15분 동안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전주시 방역과 경제 대응 모범사례를 청취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주시가 이번 코로나 이전부터 굉장히 좋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고 칭찬하며 "예를 들면 착한 임대운동, 해고 없는 도시 어떻게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440명의 임대인이 참여해 900여개 점포가 혜택을 본 착한 임대운동 ▲비정규직 근로자 등 약 5만 명이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980여개 업체가 참여한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사례들을 설명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전주시장에서 정말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었는데, 방역 뿐 아니라 경제방역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냈다"면서 "해고 없는 도시와 임대료 인하 이런 것들이 전주시에서 가장 먼저 한 건데, 가장 중요한

전후 긴급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정부가 하는 재난지원금의 형태를 제일 먼저 지방정부차원에서 한데가 바로 전주다. 이런 좋은 사례를 계속 만들어 달라"고 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요령을 묻는 질문에 "전주시에서 방역이 1번이다,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큰 역할을 했다"면서 "전주시민들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잘 따라주셨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수로(전주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자"고 축하하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주에서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440명의 임대인이 참여해 900여개 점포가 혜택을 본 착한 임대운동 ▲비정규직 근로자 등 약 5만 명이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980여개 업체가 참여한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사례들을 설명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전주시에서 정말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었는데, 방역 뿐 아니라 경제방역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냈다"면서 "해고 없는 도시와 임대료 인하 이런 것들이 전주시에서 가장 먼저 한 건데, 가장 중요한

**내리지 말고 차 안에서 구매하세요**

**진안 홍삼·농특산물 드라이브스루 할인판매**

2020. 9. 18. ~ 9. 20.(3일) 10:00~16:00  
마이산 북부관광단지 주차장(진안읍 마이산로 127)

<p><b>프리미엄 진안 홍삼액골드</b></p> <p>90,000 <b>54,000</b></p> <p>진안군수품질인증제품으로 6년근 진안삼 100%를 사용한 다량액</p>	<p><b>다가진 : 홍삼정 하루동안</b></p> <p>90,000 <b>54,000</b></p> <p>진안군수품질인증제품으로 100% 진안삼 사용한 먹기 간편한 스틱형 제품</p>	<p><b>프리미엄 진안 홍삼정골드</b></p> <p>195,000 <b>117,000</b></p> <p>건강기능식품, 진안군수품질인증제품, 6년근 진안삼을 사용한 홍삼농축액 100%제품</p>	<p><b>포기2kg+증각2kg+열무1kg</b></p> <p>43,500 <b>30,000</b></p> <p>2019 제8회 김치품평회 최우수브랜드 선정 HACCP, 전통식품품질, 전라북도지사 인증</p>
<p><b>삼겹살1kg+목살1kg</b></p> <p>54,000 <b>40,000</b></p> <p>맛있고 특별한 진안산 돼지고기세트</p>	<p><b>국거리700g+불고기700g</b></p> <p>68,000 <b>50,000</b></p> <p>홍삼먹인 진안 홍삼한우 정육세트</p>	<p><b>선물용</b></p> <p>50,000 <b>35,000</b></p> <p>전북인삼농협의 간판 관리로 원산지 및 농약 걱정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p>	<p><b>실속형</b></p> <p>30,000 <b>21,000</b></p> <p>믿고 드시는 안심인삼! 진안인삼은 표준재배법 준수</p>
<p><b>사과(종로)</b></p> <p>40,000 <b>28,000</b></p> <p>선물용세트 5kg 17~18과</p>	<p><b>사과(종로)</b></p> <p>50,000 <b>35,000</b></p> <p>작아도 맛있는 가정을 실속 사과 10kg 40~44과</p>	<p>□ 품목별로 구매 제한수량이 있으니 주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준비한 상품이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p> <p>□ 도보이용자는 구매 불가합니다</p> <p>□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내요원 지시에 적극 협조바랍니다</p>	